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873호 현대불교 29  
2012년 2월 1일(음 1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시간과 공간은 시간도 공간도 없이 잘 나찰나 나무는 생활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시간도 만들어 놓고, 공간도 만들어 놓고, 날짜도 만들어 놓고 해우년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왔는데, 올해는 더 한층 내 마음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다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든 자기 주처를 믿고, 자기 불성을 믿고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즉, 주처라는 자체가 주장자도 되고 불성도 되고 주인공도 되고 자부처도 됩니다. 이틀이야 그 중에서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습니까마는 주인공이라고 부른 것은 지금 세속에서도 주인공이라고 하면 알게 돼 있고, 또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냐가 다 알고 있고, 또 주인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장자를 세워서 항상 수레가 구르듯이 그렇게 천차만별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퀴는 모두 중심에 꿰어서, 그 중심을 쥔 심봉이 바로 바퀴를 굴리는 거죠. 거기서 힘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심봉을 끼고 바퀴가 이탈이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이 심봉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육조 스님이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니까?' 했다고 했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다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성인 주장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자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통해서만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직결이 돼 있고, 또 이 세상만사, 천차만별의 생명들은 다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모르지만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다르지만 생활이 같고 생명이 같고, 모두 차원에 따라서 다르니까 하지만 어찌 생명과 생활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월이 되면 촛불제를 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량신이 들린 해가 있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구량신이 내릴 때에 집을 지으면 악행이 벌어진다 이런 소리 말입니다. 또는 삼재 액난이 들면 그해는 상당히 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일체 모든 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까닭

에 그 모든 것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악행이라는 그 자체가 말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생활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따나 지 수화풍으로 벌어지는 일들, 또 사람이 살아가다 후사를 당하는 일들, 이 모두를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각각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

이 마음에 직결되는 직결처가 자기 주인공의 주장자니까 삼재가 벌어졌든 구량신이 내렸든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더라도 거기에서 통신이 되면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거 벌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구량신도 없고 삼재도 없다. 고(苦)도 없고 집착(執着)도 없다. 멸도(滅道)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 불교 할 것 없이 못났든 잘났든 '나'는 빼놓고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해 주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교도 그렇고, '주여! 우리가 잘되게 해 주소서.'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못났든 잘났든 '자기'는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그래서 부처님과 더불어 사대 성인들이, 역대 조사들이 다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느니라. 네 나무는 네 뿌리를 알고 돌이 아닌 줄을 알고 잘나찰나 이렇게 생활을 하는 데에 잘나찰나 없어지는 줄 알아야, 공해서 없어지는 줄 알아야 돌 아니게 여여하게 들고 낼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간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자체가 광대하고 무변해서 전부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새들이 저지귀어도 다 통신이 됩니다. 꽃들도 다 통신이 됩니다. 하대못 해 길을 걷다가 만나는 나무나 돌 하나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듣지 못했으니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들리지 않아도 뜻으로는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잘못될 것 같으면 옆에 돌 하나가 서 있어도 그 돌이 스스로 제대로 가게 합니다. 왜? 그 마음하고 통하니까 그 마음이 스스로 바로 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깥으로 한다면 (가슴을 짚어 보시며) 여기 통신처의 근처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통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 가정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일임하고 관(觀)한다면 모두 저절로 일체 한마음이 다 통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세계를 위해서, 우리 불자 전부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통합니다. 저절로 이게 공덕이며 공심(共心)입니다.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화(共食化)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단하게 (가슴을 짚어 보시며) 이 주처에다가, 당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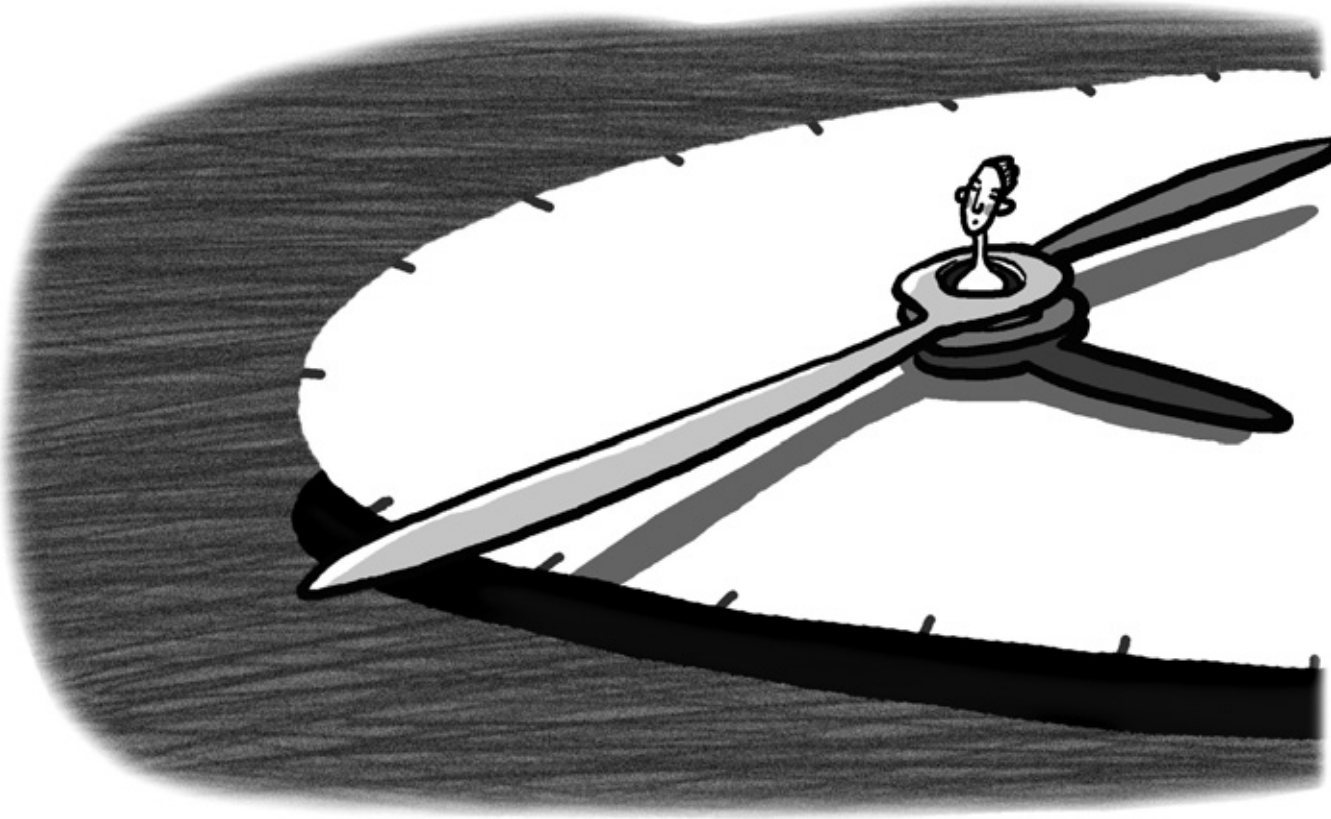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공인 주장자에다 모든 것을 다 일임해라. 일임하고 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몸이나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오는 것을 대처해 막아나가는 것을 '굴린다'고 합니다.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다들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일심으로, 일심으로 그 구멍에다가...; 텅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구멍도 없고, 구멍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텅구멍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려니까, 텅구멍 가운데서만이 큰 회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견해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하는 이런 견도(見道)도 수행을 해서, 수도(修道)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학도(無學道)에 도달해야만 열반계(涅槃界)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름이지만 우리는 이름을 따라서 안에다 모든 걸 귀함을 시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운전하게 해.' 하고, 내렸으면 '참 무사하게 해서 감사해.' 하고 일심으로, 언제나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사회를 자기로 인해서 리드해 나가는 그 주동자를 항상 주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주시를 안 해도 주시한 게 되죠. 그놈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가고 오게 해서 내가 움직여라니까 주동자는 자기 주장자가 주동이 돼서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동자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선장이거든. 왜 선장이라고 하느냐.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시며) 심봉이 끼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여지지 않는 심봉이 그 힘을 배출해서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니까요. 자기 몸이 수레바퀴라고 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수레바퀴와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복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하도 말을 해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조사들과 일체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돼서 내 입을 그냥 통하는 겁니다. 모습을 보고서 이러니저러니 하지 마세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가 있을 새가 어디 있으며, 병고가 불을 새가 어디 있으며, 삼재가 불을 새가 어디 있으며, 구량신이 불을 새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만사 모든 것이 불을 새가 어디 있

☞ 30면으로 계속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 소원 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항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체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봉(삼각기봉)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 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빨강색 (액운, 액살 소멸), 노랑색 (부울 상경)  
졸업선물, 각종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가격 : 23,000원 1SET : 45,000원

단체주문 환영

우 능 식 031)898-5698 / 010-2589-7280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가격 : 31,000원  
단체주문 환영



신묘장구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 무엇을 하든 자기 주처를 믿고 그 자리에 봐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습니까. 고가 불을 새겨서도  
내가 출창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발  
자국을 때려 놓을 때에, 때려 놓으면 한 발 없어  
지고, 때려 놓으면 한 발 없어지는데 무슨 고가  
불습니까. 때려 놓으면 없어지는데 거기에 고가  
있습니까? 팔자 운명이 있습니까? 구렁신이 불  
어 있습니까? 삼재 액난이 불어 있습니까? 불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게 불어지는 거지 불어지는 게 없습니.

그러니까 '내 몸도 소중하다' 하는 것은, 그 생  
명들의 의식들도 내 몸과 더불어 같이 한 개체  
로서 움직여야 돼야 상대를 알고 세상을 알게  
되니까 봐도 본 사이가 없어요. 이걸 보면 다른  
걸 보게 되죠. 이걸 들으면 다른 걸 듣게 되죠.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게 되죠. 차를 타면 내리  
게 되죠. 또 탄 차 타게 되죠. 이 사람 만나면 탄  
사람 만나게 되죠. 한 개체가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들어야 하는 거니까, 이거 갖다 넣고 저  
거 갖다 넣고, 이거 갖다 하고 저거 갖다 하고,  
이렇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수레바퀴 돌  
아가듯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본래, 본래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유가 많고 사단이 많으니까 오히  
려 불교는 어려워서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  
래서 이 마음공부는 팔정도(八正道)도 집어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고집멸도(苦集滅道)' 하  
지만 고가 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집착도  
없죠. 그럼 멸도죠. 뭐, 간편합니다. 그렇게 간편  
한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기복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칠성 부처님, 산신, 지신, 뭐 그냥 타치는  
대로 찾는 거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타치는  
대로 찾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빠놓고, 자기 뿌리와 싸움 다 빼놓고 타의의 형  
상을 믿고 이쁨을 믿고 타인을 믿는다면, 자기  
까지도 자기 고깃덩어리만 믿는다면 그거는 도  
깨비 장난과 같으니라. 너 먼저 알아야 세상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남을 리드할 수도 있고, 정  
신계에 원동력을 불어 넣어 줄 수도 있고, 물리  
계 타치게 할 수도 있고... 왜냐? 영혼의 근본은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손색이 없거든. 영  
혼의 근본은 돌이 아니거든. 그래서 찰나찰나  
들고 나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근본, 그 자리가 바로 다 통  
신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처예요. 그래서 좋은  
데로 가지 못한 조상들이 있으면 (기슴을 짚어  
보시며) 여기서 말겨려. 말기만 하면 그 자  
리에서 자기 주인공으로부터 일체제불의 마음  
이 통해서 그 마음자리에서 보살로 화해서 응해  
준다. 그래서 응신(應身)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좋은 데로 못 간다  
면 자동적으로 지장보살로 응신이 돼서 응해 주  
신다.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 놔으면 입력된 대  
로 다, 여기서 꺼내 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꺼내  
쓸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자  
기를 리드하면서 자기 보디가드도 되는 참보배  
가 자기한테 항상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죠. 저 나무들을 보세요. 이파리 하나, 가지 하나  
도 손색이 없이 자기 뿌리를 의지하고 있어요.  
뿌리를 잘라 낸다면, 동강 낸다면 그 나무 썩은  
다 죽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그리고 기복적인 말을  
들어도 자기 마음이 움직여지는지 움직여지지  
않는지 그것부터 봐야 돼요. 내 마음 주장자가  
발동을 해서 움직여지느냐, 안 움직여지느냐 그  
거를 봐야 돼요. 그것이 완벽하다면 알아도 서  
도, 잠을 자도 일을 해도 바로 좌선이 되는 겁니

자기부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거지 자기가  
없고 무슨 세상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  
문에 어려움도 있는 거고 좋은 일도 있는 거지.  
자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떤 것에도 절대 움직여  
지지 않으시겠죠. 옛날에 그렇습니다. 여우가 아홉  
마리가 나와서 꼬드켜도 움직여지지 않고 있  
었다구요. 허허하... 그래서 석존께서는 오직 일  
심으로 자기 주장자만 공부한 거죠. 수억겁을  
거쳐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형성된 자기를,  
자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수  
없이 살아나온 자기를 현재의 자기가 찾은 거  
죠, 서로 통신이 되고 상통이 돼서.

그전에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요 말 한마디 하  
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공부라고 할 건 없지만,  
아이를 기가까이 묘지 두 개 나란히 있어요. 날  
은 어둡고 밤이슬은 차갑고 그러니까 제가 묘지

것은 체가 없어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면 지금  
여러분의 주장자가 하나가 돼 줘요. 아들로 하  
나가 돼 버리죠. 아들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을 끌어트려서 어떡하느냐.' 하시는데  
그런 염려 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그냥 아들로  
하나가 돼 버리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 없이 이  
렇게, 만약에 관을 한다면 이렇다면 아버로  
하나가 돼 버려요. 자(子)가 됐다 부(父)가 됐  
다가 찰나찰나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한테 "여  
보!" 하면 남편 행동을 하게 되고, "아버지!" 하  
면 아버지의 행동을 하게 되듯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 돌이 아닌 까닭에 그건 얼마든지, 백  
천만 개가 따로따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치로구나.' 하고... 그래서 영당  
이를 때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을 했다 하면 자로서 범신이 되는 것이고 몸을

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못났다고 해  
서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이라는 사람은 이  
마음공부를 못 하고 항상 생사윤회 바퀴에 꼬달  
려서 세세생생을 그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  
니다. 아셨죠?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남):** 스님,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스  
님께 말씀드리게 된 걸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  
니다. 저는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  
니다. 저는 지금 사심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자  
식까지 낳고 세 끼 밥을 같이 먹고 빨래를 해 주  
는 집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해부터는 한마  
음이 돼서 이 마음공부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  
는데, 스님께서는 늘 실천하고 관하라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 자  
리에서 스님께 길을 좀 여쭙고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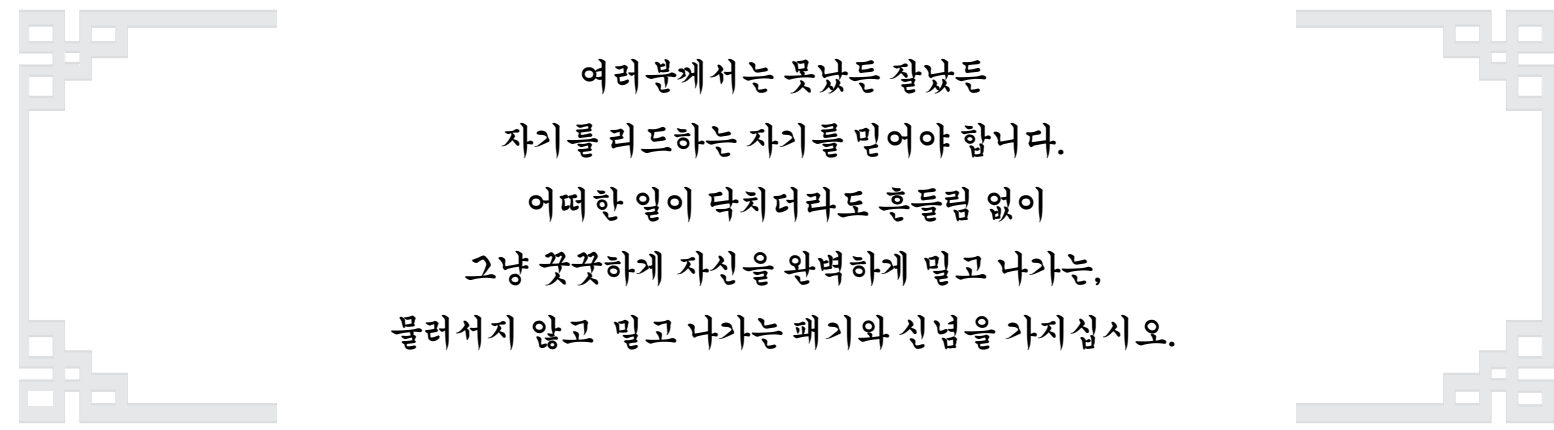
**스님:** 부인이 안 따라오는 분도 있고 남편  
이 안 따라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강제  
로 하면 부러지고, 또 너무 누굴누굴하게 하면  
누굴누굴하게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강도가  
맞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전자보다 아주  
달라져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안 따  
라오더라도 부인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자  
비가 흐르고 베풀고, 전자보다 달라졌다. 이럴  
때 처음에는 얼마 동안이고 모르다가 '아, 내 아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거기가 어딘가 한번 가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달라졌을 때 여자가 같은 생  
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많이 생각을 해요. 생각  
은 하는데도 자기가 세웠던 그 자존심, 자기가  
세운 자존심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  
니까 그 자존심이 조금, 귀퉁이 요만큼만 지금  
없어졌지 전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저 전체  
에서 눈 하나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조금  
밖에. 그거는 '남편이 그러하니 나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냥 이 정도죠.

그러니까 그저 지성이면 감편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따로 보지 마세요, 언제나. 따로 보지 마  
시고 항상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마음도 돌아  
나는데 이렇게 되겠다.' 하고 믿어요. 믿고 거리감  
을 두지 마세요. 저런 나를 안 따라온다는 거리  
감요. 여여하게 그냥, 안 따라온다 따라온다 이  
런 거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이거든요.  
그걸 다 놓으세요, 그냥. 다 그냥 그 주인공을 믿  
고 거기가 다 맡겨 놓으면 스스로 돼요.

**질문자(남):**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7년 2월 2일 범행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  
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리드하는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냥 콧웃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믿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믿고 나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십시오.

다. 무릎을 꿇고 몸뚱이를 들고 앉았다고만 해  
서 좌선이 아니예요.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요  
지부동, 주인공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자기  
주장자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면 좌  
선이 되죠.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 자리  
에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애깁니다. 여러분이 자손들을  
낳아도 부모가 그 자손들을 잘살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애깁니다. 결국은 그 자손 자신에게 달  
려 있다는 애깁니다. 그러니까 허황되게, 쫓불제  
를 하면서도 바깥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이렇다  
면 그 재앙을 못 면할 겁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그대로 부처입  
니다.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하고 관했  
다 하면 법신(法身), 즉 문수가 되는 거고, 움직  
거렸다 하면 화해서 보현신이 되는 겁니다. 이  
렇게 간편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이 도리를,  
이 진리가 아니었으면, 생활이 아니었으면, 선지  
식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  
까마는 그 듣고 아는 것도 율해로 알아야겠죠.  
이 세상에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으뜸입니다.

있는 데 가서 잘 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자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과거  
나가 현재 내려려 하는 소립니다. "저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의 묘지고 하나는 자식  
의 묘지나. 그런데 아버의 묘지가 자식한테로  
가면 자식과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로  
오면 아버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처럼 그릴  
게 파악 생각하지 못했죠. 통했으면서도 그릴  
게 한 거예요. 통하면서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재찍질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승은 거기에 있는 거지, 딴 데 스승  
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뜻이 뭔고 하는  
데 아무리 앉았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  
요. 그날 밤 지나고, 그 이튿날 낮이 가고, 그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또 환하게 밝아오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째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비호같  
이 무슨 생각이 들어서 '아하, 그렇지.' 그러고  
웃았더니, "어이, 너 알아냈구나!" 하는 거예  
요.

이제 여러분한테로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이  
영혼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움직여졌다 하면 화해서, 즉 말하자면 화신이라  
고도 하지만 보현신이 되죠. 길을 가다 없어져  
서 다리가 아프면 벌써 내 손부터 가요. 앞도려  
졌으면 누가 일으켜 주죠? 이게 보현신이거든  
요. 남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모  
두를 위해서 이게 보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현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나' 를  
믿으세요. 아주 자기가 못나고 형편없다 하더라  
도 그건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세상  
에 나올 권리가 있어서 나왔고, 나왔으니 또 살  
 권리가 있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자기를 리드  
하고 간다' 는 그 도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래서 육조 스님은 '내 불성이 있는지 어떻게 알  
았으리까? 내 불성이 여여한 줄 어떻게 알았으  
리까? 내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삼체니 뭐니 하는 그런 데 귀  
를 기울이거나 쫓아들지 말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콧웃하게 자신을 완벽하게 믿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믿고 나가는 패기와 신념을 가지  
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신념에 의해서 바른 생

##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  
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  
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  
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  
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들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